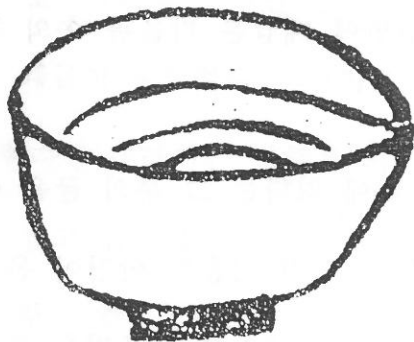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28호(97/4/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밥 한 공기 나누기



밥한그릇의 행복.
물한그릇의 기쁨.
이정숙

배고픈 아동에게 음식을,
병든 아동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북한의 굶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중에서

자리 혹은 계급

김형태(변호사, 운영위원)

70년대는 대학의 사회철학시간에 조차 계급이라는 사회고학용어를 꺼리는 시대였다. 그래서 '존재는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쿠제 정도의 글 가지고도 무슨 보아서 안될 금기를 엿본 듯이 가슴 두근대기도 했었다. 계급을 이야기하면 진화에 뒤떨어진 퇴물로 치부되는 '포스트모던'한 이 시대와 비교하면 정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한 세대 30년도 아니고 불과 20년만에 계급은 박물관 속의 골동품으로?

오랜만에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었다. 역시 씨올밖에 없다는 그분의 글을 이제 다시 보면서 정말 그런가하는 자문을 해 본다. 10여 년전 서울의 야경이 온통 내려다보이는 어느 산동네 판자촌에서 영구임대주택쟁취를 내걸고 두주먹을 흔들며 결의를 다지던 씨올들이 떠오른다. 10년의 세월 뒤 빈민운동의 대중으로 남아 있던 이들은 여전히 건강성을 잃지 않고 다 잘들있다. 그런데 운동의 상층부르조아가 이른바 권력을 가지게 된 이들중 몇몇은 씨올들을 그렇게도 억누르던 정치권력자들과 닮은 꼴의 아집투성이 사람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자신만이 옳고 남들을 지도할 수 있으며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은 이제는 운동을 깨뜨리는 분열 요소로 전락되었는데도 본인은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러니 씨올을 어떻게 믿어? 결국 권력을 쥐면 탄압자들과 똑같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씨올을 믿는다. 씨올이 씨올인 것은 그 사람이 씨올인 한에서 그렇다. 우리가 그 빈민운동의 지도자를 믿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품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자리로서의 씨올을 믿는 것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네들은 돈이 아니고 사회변혁이라는 고상한 목표를 향한다는 자긍심이나 명예감 또는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이것도 분명히 권력이다-이 주는 이기심의 만족을 떨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낮은 자리, 씨올의 자리, 노동의 자리를 벗어나면 바로 탄압자가 되고 만다. YS의 개혁에 뛰어들었던 과거 민중당 출신자들이 오히려 한 술 더 뜨는 요즈음 실태 역시 마찬가지다. 김 아무개, 이 아무개가 노동운동 빈민운동의 대의에 뛰어들어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가 노동자이고 빈민인 한에서 예쁜 것이다. 이것을 굳이 거슬리는 말로 이야기하면 계급이 중요하다는 말이요,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씨올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려지는 결론은 자명하다. 자리를 잘 골라잡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처세술이다. 15, 6년전 검사시보 몇 달을 하면서 사람들 잡아놓다보니 지하철 맛은 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죄수로만 보였다. 그 쥐꼬리만한 권력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나로서는 그 권력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나를 보존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이었다.

자리를 잘 골라잡아 씨올 옆에 서는 일. 개혁합네 변혁합네하고 정치권력이든 운동권의 권력이든 무슨 가진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일. 노동자 옆에 서 있는 일. 빈민 옆에 서 있는 일. 억눌린 자들 옆에 서 있는 일. 이것이 이 한세상을 살 수 안하고 살아가는 비결이다.

사 / 업 / 보 / 고

(97년 3월 셋째주부터 4월 둘째주까지)

올 9월말, 『쇼와』 등 20여 편 상영 예정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구성-

제2회 인권영화제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는 올 9월 27일(토)부터 10월 3일(금, 개천절)말, 또는 10월 말경에 1주일 동안 열릴 예정이며, 상영장소로는 동국대나 서강대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해와 비슷하게 조직하고, 집행위원회는 김태영(인디컴 대표)/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이충직(중앙대 영화과 교수)/김동원(푸른영상 대표)/김혜준(영화연구소 실장)/윤혜경(문화예술기획 개마 실장)/강경선(방송대 교수, 사랑방 운영위원)/조광희(변호사) 등으로 구성하였고, 서준식 대표를 집행위원장으로 16일 열린 제2차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했습니다. 영화제 실무는 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영화제 규정을 만들고, 인권영화상 시상식을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하지 못한 부대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작은 콘서트, 강연, 초청 감독과의 간담회, 야외 전시: 인권 이미지전 등이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보다 영화작품들이 어떤 것이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주제성이 강한 작품을 상영하게 될 것으로 보여 언론과 영화팬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행위원회는 상영 후보작을 10여 편을 골라 놓고 있는 상태며, 이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수준높은 작품들을 교섭하고, 제1회 상영작 중에서 두 작품 정도를 앵콜 상영할 예정이어서 20편이 넘는 작품이 상영되게 됩니다.

이들 작품 중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작품은 『쇼와(SHOAH)』로 상영시간만 9시간 30분인 대작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에서 제작한 것으로 수용소 생존 유대인과 전 나치 친위대원 38명의 육성기록을 담은 작품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개봉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밤샘 상영이 대단한 성황을 이뤘다고 하는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소개된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전적인 명작으로 흑인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 『Killer of Sheep』(77년작, 극, 흑백, 87분), 나이지리아에서 외국자본과 유착한 군사정권의 잔인한 민중탄압을 그린 『Drilling Field』(94년작, 기록, 천연색, 59분),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영화 『미나마따』 등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권영화제는 지난 해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열리는 인권영화제로 자리 굳히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책 출판

지난 95년 민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구성하였던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의 노력의 성과가 한 권의 책으로 담겨집니다. 인권교육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 연대회의는 원래 지난해 책자를 출판하기로 하였지만, 올해에야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도서출판 ‘내일을 여는 책들’에서 결단을 내려 햇빛을 보게 된 이 책은 5월 2일 출판되며, 이날 출판기념회도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책의 표지는 사랑방 자원봉사자로 결합한 서울대 미대 학생들이 예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부 논문, 2부 자료로 묶여지는데, 이후 아동권과 관련한 만화책을 서울대 미대 학생들과 공동작업할 예정입니다. 1부에는 「청소년 인권의 상황과 제언」(이용교, 광주대 복지학과 교수),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각 조항 해설(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노혜련,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등이 실리게 됩니다. 2부 자료편에서는 정부보고서, 민간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정부 질문 및 대한민국 정부 답변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안이 실리게 되며 부록으로는 함께 읽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쉽게 다시 쓴 조약)이 실립니다(270쪽, 7천원, 내일을 여는 책).

한편, 교육실에서는 내년도에는 서울대 미대 학생들과 공동작업으로 『만화로 보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펴낼 예정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야심찬 기획 준비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가 발간되어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들께 전달되었습니다. 합본 7호에는 96년 하반기 인권하루소식이 가감없이 실려 연세대 사태로 시작돼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파동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인권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인권상황에 대한 정리와 연세대 사태 관련한 글이 실렸습니다. 단, 기획되었던 전, 노 재판에 대한 평가글이 빠져 아쉬웠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매우 야심찬 기획을 준비중입니다. 먼저 5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이 재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안기부의 역사를 통해 본 인권침해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의 탄생과 박, 전, 노 정권으로 이어지는 안기부의 역사에서 안기부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인권침해의 선봉에 서왔던 모습들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청산도 5.18 주간부터 5.6공의 청산할 주요한 인권침해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사안별로 추적해 가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고,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제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제1기 시민인권학교, 올 10월 한 달간 열려

제1기 시민인권학교가 올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그간 찾아오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인권교육을 정기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화제가 끝난 직후 시민인권학교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시민인권학교는 이번을 제1기로 출발,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1기 시민인권학교는 인권의 기초,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 인권과 국제연대 등을 주제로 하여 11강좌가 마련될 계획이고, 교수·변호사·인권활동가 중에서 주제에 맞는 최고의 강사진을 교섭하고, 교재도 알차게 책자로 묶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지원기금에 프로젝트를 신청한 상태며, 곧 전문 기획단을 꾸리게 됩니다.

□ 운영위원회 간담회로 대체, 이사 후 운영위원회 재편

지난 4월 4일 제35차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운영위원들의 참여 저조로 다시 무산되고 곽노현, 장호순, 서 대표 등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운영위원회의 개편에 동의하고 오는 5월 2일 열릴 예정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운영위 개편 권한을 대표에게 일임하여 새롭게 진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어쨌건 4월 26일로 예정된 이사를 기점으로 조직과 사업을 일신하자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 인권 데이터베이스 막바지 입력 작업

정보자료실에서는 인권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티클 자료 1만 건, 단행본 자료 1천 건 등의 자료를 모두 각 주제별로 워크시트 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사 직후부터 입력작업을 하면 5월말까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될 수 있으며, 이후 6월말에는 참세상과 연결 통신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인권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됨에 따라서 정보자료실의 사업은 1차적인 단계를 넘게 되고, 이에 따라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통신상에서 쉽게 검색하여 인권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목록 서비스 정도에 머무르는 상태라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필요한 내용을 풀 텍스트로 입력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 인권자료를 기초로 패키지나 자료집, 책자로 엮는 작업, 빠진 자료를 보충하는 작업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자료실은 자료 서비스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완성 이후 자료회원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들, 인권단체들에는 최소한의 자료 신청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중입니다. 사실 매일 밀려드는 자료 제공 요청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인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과 현실에 합당한가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유서사건 총자료집 무료 배포

지난 93년 서준식 대표와 당시 사랑방 실무자들이 매달려 집대성한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최소 보관본만을 남기고 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의 도서관, 연구소, 언론사 자료실과 해외 한국학 도서관이 있는 곳 등 약 70여질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여유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최소한 우송료라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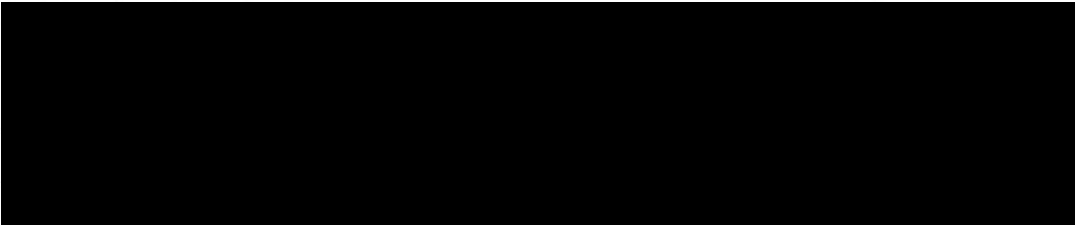
- 인권협 대선기획 사업 준비 중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인권협)는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에 인권문제를 쟁점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기획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협은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 인권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이 확산된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권운동의 입지도 거의 찾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인권문제를 진단하고, 차기 정권의 인권과제를 제시, 가급적이면 각당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전, 노 사면 반대투쟁 등 계획 잡혀가

지진부진하던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7일 전, 노 등 12·12, 5·17 내란 주범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여권의 지도층 인사들이 전, 노의 사면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사면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를 저지하고, 5,6공 잔재청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3월 재정보고 (3/16-4/15)

전기이월: -1,652,781	
수입총액: 8,946,562	지출총액: 7,864,588
회비 2,156,400 구독료 3,549,400 후원금 2,165,140 사업수익 1,064,080 은행이자 11,542	활동비 4,075,000 사업비 110,000 발송비 650,120 사무비품 84,430 사무실유지 764,338 자료구입 696,990 식대(야근) 400,000 전화요금 696,170 사무기기 267,800 복사비 89,740 기타 30,000
최종결산: -570,807 원	
<3월 자문·운영위원 회비 납부자> 	

<4월 26일 해화동으로 이사갑니다>

오는 4월 26일 이사날로 잡아놓고 이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입니다. 새 사무실에 열은 녹색으로 페인트칠을 했으며, 자료실은 벌써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민주법연도 저희와 같이 쓰게 됩니다.

냉장고나 컴퓨터(386급 이상), 책상이나 책장 등 사무용품 등 비품이 많이 필요한데요, 쓰던 것이라도 괜찮으니 있으면 연락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비 밀린 분들 과거청산해야죠>

일상적으로 경비가 모자라고, 이사도 가는데 돈은 없어요. 운영위원님이나 자문위원님들, 다른 사람들 과거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밀린 회비 이번 달 안으로 꼭 청산해 주십시오.**